

‘메가 38득점 폭발’ 정관장 대역전극...챔프전 끝까지 간다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2-2 원점...내일 흥국생명과의 인천서 5차전
김연경 ‘라스트댄스’ 홈까지 연장...3차전 한세트 최다 점수 타이 기록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챔피언결정전을 최종 5차전으로 끌고 갔다. 정관장은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5전 3승제) 4차전에서 세트 점수 3-2(25-20 24-26 36-34 22-25 15-12)로 승리했다. 앞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1-2차전에서 모두 패했던 정관장은 4일 열린 3차전에서 세트 점수 0-2로 끌려가다가 3-2로 역전승,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4차전마저 잡은 정관장은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다. 정관장은 이날 5세트에서 7-10으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다가 5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고 승리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정관장과 흥국생명은 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최후의 대결을 펼친다. 정관장은 2011-2012시즌 이후 13년 만이자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흥국생명은 2018-2019 시즌 이후 6년 만이자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1세트 정관장은 강력한 서브로 흥국생명 리시브를 흔들며 놓는 데 성공했다. 정관장은 11-8에서 메가의 킥오피와 박은진의 블로킹, 메가의 강타로 3연속 득점에 승기를 잡았고, 16-11에서는 4연속 득점으로 사실상 1세트 승리를 결정지었다. 흥국생명은 20점 이후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뒤늦게 추격했으나 20-24에서 최은지가 서브 범실을 저질러 정관장이 1세트를 쟁겼다. 2세트 역시 정관장이 23-18로 크게 앞서가면서

두 세트 연속으로 가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기적 같은 6연속 득점으로 24-23 대역전에 성공했다.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으로 서브권을 가져온 흥국생명은 이고은 서브 때 5연속 득점했다. 1세트 잠잠했던 투트쿠가 펄펄 날아다니며 3점을 냈고, 흔들린 정관장은 부키리치와 메가가 한 번씩 공격 범실을 했다. 정관장이 박은진의 블로킹으로 24-24 듀스를 만들었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강타와 투트쿠의 블로킹으로 26-24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3세트에서는 흥국생명 김연경과 투트쿠, 정관장 메가와 부키리치 양 팀 쌍포가 골고루 불을 뿜었다. 일진일퇴 공방 끝에 두 팀은 두 세트 연속 듀스 접전을 벌였다. 흥국생명이 정호영의 오버넷 범실로 먼저 한발 앞섰고, 정호영은 곧바로 오픈 공격에 성공해 경기가 원점으로 갔다. 이후에도 두 팀은 최고의 집중력을 선보이며 시소게임을 이어갔다. 마지막에 웃은 팀은 정관장이었다. 정관장은 34-34에서 부키리치의 킥오피로 35-34를 만들었고, 염혜선의 서브를 정윤주가 받지 못하면서 서브 에이스로 길었던 대결에 마침표가 찍혔다. 불과 이를 전인 3차전 2세트에 역대 챔피언결정전 한 세트 최다 점수(36-34 합계 70점, 흥국생명 승) 신기록을 세웠던 두 팀은 이날 타이 기록을 이뤘다.



6일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4차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경기. /연합뉴스

전열을 정비한 흥국생명이 4세트를 만회하면서, 결국 두 팀은 마지막 5세트에서 승패를 겨루게 됐다. 2차전과 3차전에 이어 3경기 연속 폴세트 대결이다. 정관장은 5세트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쳤다. 7-10으로 끌려가던 가운데 메가의 후위 공격과

염혜선의 서브 에이스, 메가의 강타가 이어져 동점을 만들었다. 여기서 기세가 꺾이지 않고 부키리치의 강타와 투트쿠의 공격을 막은 부키리치의 블로킹으로 5연속 득점에 12-10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정관장은 부키리치와 메가의 연속 득점으로 14-11로 매치 포인트만을 남겼고, 14-12에서 메가가

킥오피로 마지막 득점에 성공해 명승부를 승리로 장식했다. 메가가 38점, 부키리치가 28점을 터트리며 66점을 합작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팀 내 최다 32점을 터트렸고, 투트쿠도 30점으로 거들었으나 마지막 집중력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최하위 인천시청에 역전패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의 연승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5일 강원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시청과의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6차전 맞대결에서 22-24로 패했다. 지난 29일 서울시청을 상대로 4연패를 끊은 뒤 연승에 도전했던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후반 흐름을 내주면서 역전패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인천시청 박민정이 7m드로 성공해 경기 첫 골을 가져갔다. 전반 5분 광주도시공사는 서아루의 속공으로 골을 기록하며 추격에 나섰다. 뒤이어 인천시청 김주현이 6m드로 골을 넣어 1-2 다시 1점 차로 벌어졌다. 인천시청의 실책과 광주도시공사 김수민의 연속 골로 12분 4-4 동점, 4-5로 뒤진 13분에는 연지현의 6m드로 골로 또 5-5 동점을 만들었고, 14분에는 김금정의 골로 6-5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두 팀은 1-2점 차 싸움을 이어갔다. 전반 29분 광주도시공사 정현희가 6m드로 골에 성공했고, 인천시청 구현지가 리바운드로 동점을 노렸으나 골키퍼 이민지가 막아내며 11-10으로 전반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후반 초반에 김지현이 부상으로 빠졌고, 도시공사는 분위기를 잡는 데 실패했다. 인천시청 골키퍼 최민정의 잇따른 세이브와 3연속 속공으로 도시공사는 15-12로 점수를 내렸다. 이후 광주도시공사가 추격을 펼쳤지만 주도권을 잡은 인천시청에 엠포티 골을 허용하면서 19-16로 3골 차로 벌어졌다.



광주도시공사 연지현이 5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청과의 경기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도시공사 골키퍼 이민지의 선방으로 추격할 기회를 잡았지만, 실책으로 속공을 허용했다. 이효진이 원에서 골을 넣으면서 인천시청이 19-23으로 달아났다. 이후 후반 리드를 가져오지 못한 도시공사는 이날 경기를 22-24로 마무리했다. 서아루, 정현희, 김지현이 각각 4골을 기록했고, 골키퍼 이민지는 7세이브를 기록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도시공사(5승 2무 13패·승점 12)는 시즌 두 번째 연승에 실패했고 6위에 머물렀다. 한편 같은 날 SK슈가글라이더즈는 부산시청공단의 경기에서 패해 개막 후 20연승이 무산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8시 대구시청을 상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선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HL안양,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V9 달성

HL안양이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통산 9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HL안양은 지난 5일 안양빙상장에서 열린 레이글스 핫카이도(일본)와의 2024-2025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파이널(5전 3승제) 4차전에서 31세이브를 기록한 골리맷 달턴의 선방과 강민환의 연장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승리,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챔피언에 올랐다. 팀당 32경기를 치르는 정규리그에서 승점 62로 우승한 HL안양은 2위 레이글스와 파이널에서 1차전과 2차전에 이어 4차전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해 세 시즌 연속 통합 우승(정규리그 1위·플레이오프 우승)을 일궜다. HL안양은 2파이어드 8분 43초에 고바야시 도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현승의 동점골로 경기를 원점에 돌렸다.

2파이어드 13분 30초에 오츠 유세이에게 패스받은 김건우가 상대 골대 뒤쪽을 돌아 나오며 기습적인 백핸드샷을 날렸고, 레이글스 골리 나리사와 유타에게 리바운드된 퍽을 이현승이 쇄도해 해결했다. 3파이어드 초반 뉴트럴존 쪽 강화유리가 깨지는 불발 상황으로 20여분간 지연된 경기는 1-1 균형이 깨지지 않은 채 연장 파이어드로 이어졌다. 그리고 10분 29초 만에 강민환이 행운의 결승골을 터트리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격지역 중앙에서 안전화가 장거리 리스트샷을 날렸고, 골 크리스로 쇄도하던 강민환의 다리에 맞고 퍽이 레이글스 네트로 빨려 들어갔다. HL안양은 이로써 9번째(2010, 2011, 2016, 2017, 2018, 2020, 2023, 2024, 2025)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파이널 챔피언에 올랐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골리 달턴은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연합뉴스

‘한국 바둑 절대 1강’ 신진서 64개월 연속 1위

최정, 여자 랭킹 1위 탈환

한국 바둑의 ‘절대 1강’ 신진서 9단이 4월 랭킹에서도 1위를 지키며 64개월 연속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신진서는 지난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랭킹에서 1만423점을 기록해 박정환(9909점) 9단을 여유 있게 제치고 1위를 달렸다. 지난달 10승 2패를 기록한 신진서는 랭킹 포인트가 11점 줄었으나 2위와의 격차가 커 1위 수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베테랑 강동윤 9단은 2개월 연속 3위를 지켰고 이지현 9단은 개인 최고인 4위를 차지했다. 변상일 9단과 신민준 9단은 공동 5위가 됐고 김명훈·원성진·안성준·김정현 9단이 7~10위에 자리잡았다. 여자 랭킹에서는 최정 9단이 김은지 9단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올해 들어 여자 랭킹은 최정과 김은지가 매달 1위를 주고받는 양상이다. 오유진 9단이 여자 랭킹 3위, 김채영 9단은 4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